

2024 우크라이나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I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1. 개요	4
가. 시장 전망	4
나. 주요 경제지표	5
2. '24년 주요 이슈 및 전망	6
가. 재건/복구 사업	6
나. 우크라이나 대선 실시 불투명	7
다. 러-우사태로 인한 물류 대란	8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10
2. 시장 분석	19
가.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19
나. 교역	20
다. 투자 진출	22
라. 프로젝트	23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24
가. 교역	24
나. 투자	26
다. 협력 유망 분야	26

III 진출전략

1. PEST 분석	30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31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32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37
---------------------	----

첨부 2. '24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39
--------------------------------------	----

Chapter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 2024년 우크라이나 경제, 3~4%대의 성장을 전망되나 러-우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

- 2022년 2월에 벌어진 러-우 사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20% 가까이 장악했고, 동 사태가 1년 반 정도 흘러오며 우크라이나 경제도 큰 타격을 입고 있음
- 러-우 사태가 장기화되고 정부 예산사정도 점점 악화되면서 2024년 경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 예산의 약 60%는 해외 정부 국제기구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무상 원조와 차관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
 - 예산 부족뿐 아니라, 채무 상황 또한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전망 보고서 등을 종합해볼 때 2024년 3~4%대의 경제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4.3%, EBRD 3%, IMF 3.2%, EU 4%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인구	백만 명	42.2	41.9	41.7	41.5	41.0	36.1	36.6	37.0
명목 GDP	십억 달러	112.1	130.9	154.0	155.3	199.8	160.5	171.8	215.2
1인당 명목GDP	달러	2,660	3,120	3,690	3,740	4,800	4,440	4,700	5,820
실질성장률	%	2.4	3.5	3.2	△4.0	2.5	△30.4	0.7	3.9
실업률	%	9.7	9.0	8.5	9.2	9.7	21.1	16.7	15.3
소비자물가상승률	%	14.4	10.9	7.9	2.7	10	20.1	15.3	10.3
재정수지(GDP대비)	%	△1.5	△1.6	△1.9	△5.1	△3.4	△16.3	△13.9	△15.9
총수출	백만 달러	433.0	473.7	500.8	492.2	680.9	444.4	-	-
(對韓 수출)	"	5.4	3.9	4.6	6.3	3.1	7.0	2.0	-
총수입	"	494.6	568.2	604.3	536.7	718.9	552.2	-	-
(對韓 수입)	"	2.6	3.4	3.5	3.9	5.8	2.2	1.1*	-
무 역 수 지	백만 달러	△61.6	△94.4	△103.4	△44.4	△37.9	△107.8	-	-
경 상 수 지	"	△24.50	△42.8	△42.1	62.3	△38.8	80.0	48.0	26.0
환율(연평균)	현지국/US\$	26.5	27.2	25.8	26.9	27.3	32.34	36.57	35.58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26.2	25.9	34.1	27.5	-	-	-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36.8	44.6	52.1	△9.5	66.87	8.3	-	-

주: 2023년은 추정치, 2024년은 전망치 기입

자료: IMF, IHS Markit, EIU, Worldbank, 한국무역협회,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등

※ 요약 :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친러시아 vs. 친서방으로 대변되는 동서 간 갈등이 오래 지속되고 있고, 2024년 대선과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우크라이나 정부의 정책 방향이 크게 변화할 수도 있는 상황

가. 재건/복구 사업

▣ 우크라이나 정부의 재건 논의 시작, 긴급 복구 중심으로 진행 예정

-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우 사태 직후 재건사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기는 했으나, 러-우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긴급 복구 중심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음
 - 실제, 2022년 4월, 테니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는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 'U-24'는 3단계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음

단계	추진 방향과 수행 내용
1	러 軍에 의해 파손된 자산 가운데 임시로라도 신속하게 복구할 필요가 있는 것은 현재 바로 복구하고 있음. 특히, 軍 작전에 필요한 인프라 중심으로 복구 중임
2	1단계 사업 대상이 아닌 것들은 전후 복구사업을 통해 신속히 재건사업을 시행함. 예를 들어, 상하수도·전력망 등 핵심 인프라 시설은 2단계 사업에 속함
3	궁극적으로 국가 인프라 전반에 대한 대개조 작업을 시행함

- (자금 조달) 상기 15개 과제를 2032년까지 이행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할 때, 우크라이나 정부는 '22.4월 당시에 총 7,500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추산하였음

* 전체 필요 자금 가운데, 1/3은 원조(grant), 1/3은 대출(debt and equity), 1/3은 투자유치(PPP 등)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

▣ 러-우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 재건 논의 현황

- 러-우 사태가 길어지고, 정부 예산사정도 점점 더 악화되면서 우크라이나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건사업 또한 다소 어수선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특히, '22.10월부터 러 軍이 발전소·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시설을 공격하고, 각종 기간망이 파손되면서 인프라 시설 복구는 전후에 한다는 계획을 지키기 어려움
 - 러-우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애초에 세웠던 체계적인 계획이나 우선순위 등을 떠나,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음. 하지만, 중앙정부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무상 원조나 차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 지방정부에 따르면, '22년 4분기 정도부터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거의 끊긴 상태라고 함

나. 2024년 우크라이나 대선 실시 불투명

■ 2024년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 실시 불투명

-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는 1차 투표가 2024년 3월 31일, 2차 투표가 4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현재 계엄령 기간이라 우크라이나 선거법에 따라 실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우크라이나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절차는 계엄령 종료 또는 러-우 사태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시작되어야 함.
-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3년 8월 17일 계엄령과 총동원령 기간을 90일 연장하는 법률에 서명하였으며 전문가들은 2024년에 러-우 사태가 종식되지 않을 수 있어 대선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봄.

■ 젤렌스키 대통령 지지율 81%로 여전히 높아

- 우크라이나는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가 혼합된 이원집정부제이며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중임 가능하여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임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부패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로 인해 그의 인기는 이전 최고치인 약 90%에 비해 하락함

다. 러-우 사태로 인한 물류대란

■ 해상 운송

- 해상 운송은 우크라이나 주요 산업인 철강과 농업 수출의 주 운송 수단이었음. 러-우 사태 전 곡물 수출은 전체 해상 운송의 47.8%, 철강 및 철강제품은 44.8%를 차지했었음. 그러나 2022년 2월 24일 이후 항구가 봉쇄되면서 해상을 통한 운송이 차단되었음
- 2022년 7월 22일, 우크라이나, 유엔, 터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의 흑해 수출을 재개하는 협정에 서명했음. 우크라이나 3개의 항구 오데사, 초르노모르스크, 피브데니를 통해서 곡물 수출이 재개되었음
- 협정이 몇 번 연장이 되었지만 2023년 7월 17일 이후 사실상 협정 종료되었고, 이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관계없이 해상을 통한 수출을 하고 있으나 위험부담이 큼

■ 도로, 철도 운송

- 도로 운송과 철도 운송은 현재 주요 운송 수단임. 그러나 육로 운송을 통한 무역 거래에서 인근 국가와의 마찰이 있음. 제3국 수출을 위한 목적으로 인근 국가를 경유하여 수출되고 있으나 인근 국가에도 수출/판매되고 있어 인근 국가 농업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폴란드, 불가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옥수수, 유채, 해바라기, 밀 농산품에 대해 수출을 금지했고 연장 문제로 지속적인 마찰이 있음
- (도로)우크라이나 서부 국경의 화물통관 처리 능력이 낮아 도로 운송을 통한 수출이 쉽지 않으며, EU 항구까지의 운송 거리가 여러 배 증가함에 따라 물류 비용이 크게 증가했음
- (철도) 유럽-우크라이나 철도 궤간 차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유럽 간 환적을 하는 데 시간이 걸려 빠른 물류 처리가 되지 않고 있음. 현재 우크라이나 서부에서는 특정 단일 형식의 철도 선로를 만드는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계획뿐임

Chapter



비즈니스 환경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요약 : 2022년 2월에 시작된 러-우 사태는 본질적으로 유럽 내 안보질서를 둘러싼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 충돌임. 현재까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20% 가까이 장악했고, 동 사태가 1년 반 정도 흘러오며 우크라이나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히고 있음. 향후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이 분분한 가운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교착 상태가 다소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현재 우크라이나 시장은 사태 전과 비교할 때, 매우 침체되고 어려운 상황인데, 사태 장기화에 따라 향후 전망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임

가. 정치 환경

▣ 러-우 사태로 인한 친서방주의 정권의 집권과 친서방주의 정책 지속 추진

- '19.5월에 코미디언 출신인 정치신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이전의 정부와는 달리 분쟁 해결을 위해 러시아와도 대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으나 기존의 親서방, 親NATO 정책은 계속 유지함
- 러시아는 간접적 개입에도 우크라이나가 계속 親서방, 무엇보다 NATO 가입에 대한 의지를 고수하자 특별 군사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음
 - 우크라이나는 동쪽으로는 러시아, 서쪽으로는 EU/나토국들과 국경을 접하는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흑해와 아조프해에 접하고 있어 군사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국가임
- 러-우 사태가 일찍 끝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장기화되면서 이로 인한 우크라이나 피해가 막심함. 사회경제적 손실, 병력 손실 피해는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주거용 건물, 에너지 시설, 의료 및 교육 시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음
 - * 세계은행은 1년간(2022년 2월 24일부터 2023년 2월 24일까지) 러-우 사태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직접적인 손실액 1,35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

- 서방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의견이 팽배한 가운데 앞으로 러-우 사태가 어떻게 끝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 2023~2025년 국가 부패 방지 프로그램

- 우크라이나는 2022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CPI)조사 결과 100점 만점에 33점으로 전년도 대비 1점 상승하여 평가 대상국 180개국 중 116위를 차지함. 해외 원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구권으로부터 계속 지원을 받기 위해서, EU 가입과 나토에 가입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기 위해서, IMF의 특정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부패 척결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
- '23년 3월 우크라이나 국가 반부패 기관(National Agency on Corruption Prevention)은 “2023~2025년 국가 부패 방지 프로그램”을 발표, 반부패 전략에서 확인된 73가지 문제를 272개의 결과 달성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부패 방지 프로그램 시행 결과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함
- 부패 방지 전략에서 우선순위 영역은 공정한 법원, 검찰청 및 법 집행 기관(fair court, prosecutor's office and law enforcement agencies)/경제 분야 국가 규제(state regulation of Economy)/관세 및 조세(customs affairs and taxation)/경제의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public and private sectors of the economy)/건설, 토지 관계 및 인프라 시설(construction, land relations and infrastructure)/방위(defense)/보건, 교육, 과학, 사회생활(health care, education, science and social life)임

나. 경제 환경

■ 러-우 사태로 인해 경제의 3분의 1 기능 상실

- 우크라이나는 중부·동유럽권역 국가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며, 舊 소련 시절 만들어진 기반을 바탕으로 비교적 산업 기반도 탄탄한 나라임. 제조 기반을 갖추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내수시장까지 확보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나라였으나 러-우 사태로 인해 경제의 3분의 1 기능 상실하게 됨

* 옥스퍼드이코 노믹스(Oxford Economics) 경제 위험 지수 발표 164개국 중 161위 차지

▣ 2024년 전체 예산 초안 발표

- 우크라이나의 '23년 예산은 약 720억 달러인데, 이 중 43.3%인 약 312억 달러가 국방비, 33.3%에 달하는 240억 달러 정도는 연금 및 사회보장에 책정되어 쓰이고 있음.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23년 예산 부족으로 매달 35억 달러의 해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음
 -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 예산의 약 60%는 해외 정부·국제기구·민간 단체 등에서 받은 무상 원조와 차관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23년 우크라이나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약 180억 달러 (국내 147억 / 국외 33억)임
 - 우크라이나 재무부에 의하면, 러-우 사태가 시작된 작년 2.24일부터 올해 5.31일까지 1년 3개월 동안 빌린 해외 차관은 총 290억 달러 규모임 (실제 도착액 기준)
 - * EU 집행위가 약 151억(52.1%), IMF가 약 51억(17.6%), 세계은행이 약 33억(11.4%) 제공
- 우크라이나 정부는 내년도 예산 규모를 849억 9,600만 달러로 책정했으며 국가 수입을 426억 달러로 예상하며 그 나머지는 해외 원조를 통해서 충당할 계획임. 그러나 현재 채무액이 해외 원조가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임
- 주요 예산 우선 분야 5가지 국방, 사회 보장, 보건과 교육, 보훈, 경제 회복으로 꼽았으며 구체적인 예산안은 다음과 같음

단위: 억 UAH(백만 USD)

구분	2023 예산	2024 예산안		22/23 증감률
		금액	비중	
국방 및 보안 Defence and security sector	11,411 (31,204)	16,926 (46,285)	54.5	48.3
사회 보장 Social protection	4,476 (12,240)	4,688 (12,820)	15.0	4.7
보건 Healthcare	1,761 (4,816)	2,019 (5,521)	6.5	14.7
교육 Education	1,560 (4,266)	1,778 (4,862)	5.7	14.0
비즈니스 지원 Business support	-	308 (842)	1.0	-
참전용사 지원 Support for war veterans	68 (186)	143 (391)	0.5	66.3
그외	7,126 (19,487)	5,220 (14,275)	16.8	-26.7
총액	26,402 (72,199)	31,082 (84,996)	100	17.7

* 달러는 중앙은행 고정 환율 1USD=36,5686UAH로 계산

- 2024년 예산에는 국방 부문과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 외에 드는 비용은 최소화할 예정으로, 국가 예산에는 경제성장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함

■ 2024년 우크라이나 경제 전망치

- 우크라이나 정부 및 국제기관별 우크라이나 경제 전망치를 살펴보면, 2024년 3.2~4.1%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

〈우크라이나 정부 및 국제기관별 우크라이나 경제 전망치〉

(단위: %)

구 분	우 경제부	우 중앙은행	세계은행	IMF	EIU
2017	3.0	2.1	2.4	2.4	2.1
2018	3.0	3.3	3.5	3.5	3.4
2019	2.8	3.0	3.2	3.2	3.2
2020	-4.2	-6	-3.8	-3.8	-3.7
2021	2.9	4.0	3.4	3.4	3.4
2022	-30.4	-31.5	-29.2	-30.3	-29.0
2023	1.0	2.0	0.5	-3.0	0.7
2024	3.5	4.1	4.1	3.2	3.9

자료: 우크라이나 경제개발부,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OECD, WB, IMF, EIU

〈우크라이나 전체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교역	92,765	104,192	110,523	102,903	139,987	99,668
수 출	43,300	47,372	50,088	49,229	68,094	44,444
수 입	49,465	56,820	60,435	53,674	71,893	55,224
수 지	▲6,165	▲9,448	▲10,347	▲4,445	▲3,799	▲10,780

자료 : Global Trade Atlas

다. 산업 환경

■ 산업 개요

- 러-우 사태로 인해 우크라이나 산업은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됐음. 2023년 초 우크라이나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우크라이나의 산업 생산량은 2021년 대비 36.9% 감소
 - 그중 철강산업은 가장 큰 피해를 입어 철강/철강으로 만든 제품 생산량은 2021년 대비 62.5% 감소했음. 산업 중 철강과 함께 대표 산업인 농업도 농지가 오염되고 생산량이 현저하게 감소함. 기초 원자재 산업의 생산량 저하로 인해 가공 산업의 생산 능력이 감소.
- 현재 국가 차원의 산업 발전 전략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확인됨. 2020년 11월, 우크라이나 전략 산업부(Minstrategprom)는 "우크라이나 산업 단지 개발의 일부 문제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준비함.
 - 17개 전략적 산업(방위, 연료 및 에너지, 농업, 산업, 철강, 운송 산업, 통신, 항공 및 로켓 우주, 기계 제작, 화학, 식품, 경공업, 유리 및 도자기, 가구 및 목공, 인쇄, 지질 탐사, 제약, 건축 자재, 건설) 목록을 포함하여 국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지원, 기술 개발하기 위한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음
- 러-우 사태 후 우크라이나 경제가 신속하게 회복하고 체계적으로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은 국내 산업 생산 및 수출의 원자재 방향에 의해 크게 제한될 예정임. 경제부에서 2024년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책정했으나, 지원 규모는 크지 않음

■ 에너지 산업

- 2021년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량 비중을 보면, 원자력 55.1%, 화력/열병합 29.3%, 수력 6.7%, 신재생 8.0% 순이었음. 러-우사태 이후 전력 수요는 약 40% 감소했음.

〈최근 5년간 우크라이나 전력 생산량〉

(단위: GWh)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력 생산량	155,414	159,351	153,950	148,810	156,576

자료: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 (원자력 산업)우크라이나 전체 전력 생산의 약 55%를 차지했음. 2021년 기준, 우크라이나는 15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했는데 러-우 사태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 용량 44% 상실. 무엇보다 2022년 3월 초 유럽 최대 규모이자 우크라이나 원자력 용량의 40% 이상을 제공하는 우크라이나 남부의 자포리자(Zaporizhzhya) 원자력 발전소가 러시아에게 점령되었음

〈최근 5년간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 전력 생산량〉

(단위: 10억 kWh)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력 생산량	85.58	84.40	83.00	76.20	86.20

자료: Proconsulting,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 (신재생에너지)우크라이나 주요 신재생에너지는 풍력과 태양광임. 평균 이상의 풍속, 일조량 등 이상적인 기후조건을 갖춘 덕에 우크라이나의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빠른 성장을 보임
- (태양광)2019~2021년 사이 태양열 에너지는 우크라이나의 다른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음.
 - 2022년 초에 설치된 총용량(2022년 2월 24일 이전 러시아가 일시적으로 점령한 영토 제외)은 7.6GW, 우크라이나의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의 80%에 도달함(프로슈머 4만 5,000개 설치 포함, 총용량 1.2GW) 2021년 우크라이나는 태양광 발전 부문에서 유럽 국가 중 7위를 차지함. 러-우 사태로 인해 태양광 발전 용량의 20% 이상이 손상되거나 점유되었음
- (풍력) 2022년 초 우크라이나의 풍력발전소 설치 용량은 1.6GW였음. 우크라이나의 거의 모든 풍력발전소는 풍력발전소의 자연조건이 가장 유리한 아조브 및 흑해 해안 근처의 남부 지역에 건설됐음. 러-우 사태로 풍력 발전 용량의 80% 이상이 손상되거나 점유되었음

■ 농업

- “세계의 식량 바구니(food basket of the world)”로 알려진 우크라이나는 밀, 보리, 해바라기유, 옥수수 등의 주요 수출국으로 특히 전 세계 밀 수출량의 1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 대국임. 전 세계 흑토(black soil)의 1/3이 우크라이나에 집중되어 있고, 농작하기 좋은 기후, 주요 곡물시장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등 농산물 수출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음

* 국토 면적의 70.8%가 농업에 활용되고 있고, 해바라기씨유·옥수수·밀·콩 등 곡물은 세계 수출량 Top 10

- 이처럼, 우크라이나는 곡물 생산과 수출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지켜내고 있는데, 연간 곡물 수확량은 7천만 톤 이상에 이르고, 이 중 약 5천만 톤의 곡물을 수출하고 있음. 낮은 임대료, 비옥한 토양, 낮은 임금, 양호한 물류 조건 등 농업이 성장 유망 산업이긴 하지만, 헥타르 당 수확량이 서구 기준치를 밑도는 등 생산성 부분에서 아직 개선할 부분이 많음

* 원재료(곡물) 수출에 집중하고 있어, 식품 가공 분야는 상대적으로 미약

- 러-우 사태로 인해 농업 부문의 생산 및 자원 잠재력 손실. 농지의 상당 부분은 점유, 지속적인 포격 또는 채굴로 인해 농업 활동이 불가능해졌음. 2022년에는 2021년에 비해 총 파종 면적이 20% 감소

■ 철강 산업

- 철강 산업은 농업과 더불어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핵심 산업임. 러-우 사태 전까지 세계 철강국 15위안에 위치해 있었음

* 철강 주요 생산량(단위:백만 톤): 2017(12위, 21.3), 2018(13위, 21.1), 2019(13위, 20.8), 2020(12위, 20.6), 2021(14위, 21.4)

- 그러나, 러-우 사태 시작으로 철강 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음. 철강 산업이 활발한 마리우폴(Mariupol), 자포리자(Zaporizhzhia), 크리비리흐(Kryvyi Rih) 지역이 최전선 또는 점령 지역으로, 철강 생산이 감소하게 되었고, 마리우폴(Mariupol)지역의 아조우스탈(Azovstal)과 마리우폴 제철소(Mariupol Metallurgical Plant)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완전히 파괴됨. 드니프로 제철소(Dniprovsky Metallurgical Plant)는 생산을 중단하고 파산했고, 인터프 파이프(Interpip), 자포리지스탈(Zaporizhstal), 아르셀로미탈 크리비리흐(ArcelorMittal Kryvyi Rih)는 생산을 축소

- 우크라이나 철강 산업은 국내 소비보다 수출 중심으로, 해외 수출은 철강 생산의 80%를 차지했는데 주요 수출 운송 수단이었던 해상 물류가 막혀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 이로 인해 수출 지역이 바뀌게 되었는데, 러-우 사태 전 철강 제품의 1/3 정도가 유럽으로 수출됐던 반면, 2022년에 철강 제품의 60% 이상이 유럽으로 수출되었음

- 세계 철강 협회에 따르면, 2022년 우크라이나 철강 생산량은 약 630만 톤으로, 세계 철강 생산국 25위를 차지함

* '22년 기준 철강 주요 생산국(단위:백만 톤): ①중국(1,018.0), ②인도(125.3), ③일본(89.2), ④미국(80.5), ⑤러시아(71.5), ⑥한국(65.8), ⑦독일(36.8), ⑧터키(35.1), ⑨브라질(34.1), ⑩이란(30.6)

- 그러나 철강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대표 수출 품목 중의 하나로 우크라이나 '22년 전체 수출 품목 3위로 45억 5,900만 달러를 수출했음

〈우크라이나의 철강 및 철강제품 수출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철강 (HS 72)	8,667	9,940	8,739	7,687	13,938	4,559
철강제품 (HS 73)	898	1,119	1,043	884	1,294	1,058
총 계	9,565	11,059	9,782	8,571	15,232	5,617

자료: Global Trade Atlas

라. 정책·규제 환경

▣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Recovery Plan of Ukraine)

- 2020년 8월 ‘데니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는 각료회의에서 국가경제전략 2030 구상에 대해 발표하였음. 부패 척결, 법치 보장, 경제성장의 질적 변화, 고용정책의 변화, 건강 및 교육의 변화를 주요 방향으로 잡고 추진하고자 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러-우 사태로 인해 경제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예산 대부분이 방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복구/재건에 대해서 집중하게 됨. 국가재건회의에서는 재건사업 추진 방향으로 크게 3대 방향과 15개 과제를 설정하였고, 필요한 자금의 규모도 추산
 - (3대 방향) ①회복력(Resilience) 강화, ②복구(Recovery)추진, ③현대화(Modernization and Growth) 지향
 - (15개 과제) 과제 추진 단계를 △전시(2022) △전후(2023~2025) △新경제(2026~2032) 세 단계로 설정하고, 15개의 세부 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함
 - * '22.4월 당시에는 2022년 연내 또는 2023년 중에는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음. 하지만, '23.6월 현재 전쟁은 소강 상태도 아니며, 양측 간 평화협정 체결 분위기도 없는 불확실한 상태
 -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재건회의에서 정한 기본적인 방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국가재건회의에서 정한 15개 이행 과제〉

구 분	지표 과제	주요 이행 내용
필수 전략 과제	1 국방력 강화	국방·안보 분야 현대화 작업, 방위산업 구축 등
	2 EU 편입 가속화	EU 가입 조건 충족을 위한 제도 개선 작업 등
	3 청정·안전 환경 구축	EU 녹색산업 정책에 부응하는 지속 성장 가능 환경 구축
	4 EU와 에너지 통합 강화	유럽 전력망 통합 가속화,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 강화
회복 강화	5 비즈니스 환경 개선	규제 개선, 세제 개편, 외투 유치 강화 등
	6 긴급자금 확보	해외 정부·국제기구의 지원 자금 확보, 자금 대출 활성화 등
	7 거시경제 안정화	정부 재건건정성 강화, 안정적인 부채 관리 등
성장 전환 엔진	8 산업 경쟁력 개발	전통적으로 강한 산업 분야 재건, IT 등 신규 산업 개발 등
	9 EU와 물류망 통합	EU와 철도·도로·수로 등 교통망 연결, 운송 인프라 재건 등
	10 주택 재건·개선 작업	원활한 주택 공급, 에너지 절감형 주택 공급 등
	11 사회 인프라 복구·현대화	파괴된 인프라 전반 복구, PPP 프로젝트 확대 등
	12 교육 시스템 개선	EU 교육 법제 수용, R&D 역량 강화, 과학기술단지 조성 등
	13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	보건·의료 재정개혁, 디지털 의료 체계 강화 등
	14 문화·체육 시스템 개발	인적자원 개발
	15 사회 안전망 구축	정부 지원금 시스템 개선, 연금 시스템 개선 등

2

시장 분석

※ 요약 : 국내외 정세 불안, 부정부패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정치·경제 측면에서 우크라이나가 가진 전략적 가치는 매우 높음.
 러시아에게 자국의 안보는 물론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국가이며, 우주산업, 방위산업 등이 발달해 있어 러시아 기업과의 밸류체인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 서방에게도 러시아 견제를 위치한 요충지임. 식량안보 구축, 중부·동유럽 진출 교두보 확보, 우주산업 분야 기술협력 등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잠재이득이 많은 국가이며 EU에 편입된 이후에는 경제적 가치가 더 커지겠지만, 러시아와의 계속되는 분쟁으로 인해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

가.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유라시아 지역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

- 세계 경제에서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0.2%도 채 되지 않지만, 지정학적으로 우크라이나는 결코 쉽게 다룰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국가임. 미국, 러시아, EU의 첨예한 이해가 우크라이나에서 충돌하고 있기 때문임
 - 유로마이단 운동,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돈바스 전쟁, 그리고 2024년 2월 24일부터 일어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정치·경제에 있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 일련의 사건들로 우크라이나는 국가 리스크가 큰 나라, 투자하기 위험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임
- * Moody's 신용등급 변화: ('13 이전) B2~B3(15~16등급) → ('14~'19) Caa3~Caa1(17~21등급) → ('20) B3 → Ca('23.02)

■ 한국의 식량안보 차원에서 놓칠 수 없는 세계적인 농업 국가

- 우크라이나는 북미의 프레리(Prairie), 아르헨티나 팜파스(Pampas)와 함께 세계 3대 곡창지대 중 하나이며, 전 세계 흑토의 약 1/3이 우크라이나에 분포해 있음. 세계적인 농업 수출국으로 농산물 수출 규모만 연간 200억 달러 이상임
- * '20년 기준, 우크라이나 전체 수출에서 농산물 수출 비중은 45%

- 식량 부족 현상이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국제운송비 폭등과 무엇보다 러-우 사태로 인해, 최근에는 그 심각성이 더 커지고 있음.

* UN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체 식량 가격이 '19년 대비 '20년에는 31% 상승했다고 함

-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30% 미만인 '세계 5대 식량 수입국'이자 식량 위기에 취약한 곡물 수입 구조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우크라이나와의 곡물 교역 확대, 협력 강화는 우리나라 식량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나. 교역

▣ 우크라이나 수출입 동향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에 우크라이나 대외 교역은 전년에 비해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였음. 그러나,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들어서는 수출입 전반에서 상당한 회복세를 보였음. 2021년 수출은 전년 대비 38.4% 증가한 681억 달러, 수입은 33.9% 증가한 719억 달러를 기록했다.
- 그러나, 2022년에는 러-우 사태로 인해 대외 교역에 큰 타격이 있었는데, 수출은 전년 대비 34.8% 감소한 444억 달러, 수입은 23.2% 감소한 552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교역국인데, 유로마이단 사태 이후 이어진 양국 간 분쟁으로 우크라이나의 대외 교역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고, 2022년 러-우 사태로 사실상 교역이 중단되면서, 우크라이나의 대외 교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음
- (수출) 2022년 기준으로 국가별로 살펴보면, 수출대상국 1위는 폴란드(66.9억 달러, 28.1%), 2위는 루마니아(39.9억 달러, 152.9%), 3위는 터키(29.5억 달러, △28.8%)로 나타났다.
 - 기존에 주력 수출 품목 대부분의 생산이 사실상 어려운 가운데, 현재 우크라이나의 주력 수출품은 곡물임. 러시아의 흑해 봉쇄로 해상 운송을 통한 곡물 수출이 제한적인 가운데, 폴란드 등 인접국을 통해 곡물을 수출하고 있음. 또한 폴란드 등 인접국을 목적지로 한 곡물 수출도 크게 늘었음. 이로 인해, 이전에 비해 주요 수출대상국 순위에도 변화가 있었으며,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이 2022년에 주요 수출대상국이 되었음

- (수입) 2022년 기준으로 국가별로 살펴보면, 수입 대상국 1위는 중국(86.6억 달러, △20.8%), 2위는 폴란드(54.9억 달러, 10.9%), 3위는 독일(45.6억 달러, △25.8%)로 나타났다. 해상 물류가 봉쇄되어, 폴란드 등 인접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입되는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 폴란드로부터 수입이 크게 늘어났음

〈우크라이나 총 교역 변화〉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상반기)
수출	43.3	47.4	50.1	49.2	68.1	44.4	19.4
(증감률)	18.9	9.5	5.7	△1.8	38.4	△34.8	
수입	49.5	56.8	60.4	53.7	71.9	55.2	30.4
(증감률)	26.3	14.7	6.3	△11.1	33.9	△23.2	

자료: GTA

■ 우크라이나 수입 규제 현황

- 수입 규제(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관련 정책
 - 러-우 사태로 우크라이나 자국 내 대부분의 산업 생산이 불가하여 자국 내 산업 보호보다 복구가 시급한 상황으로 반덤핑, 세이프가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크며 긴급하게 필요한 물품 대상으로 무관세 적용 가능성도 큼
- 통상협상 관련 이슈: RCEP, CPTPP, 양자 FTA, 디지털 통상 등
 - EU, 캐나다, 영국, 미국 등이 러-우 사태로 인해 어려워진 우크라이나를 위해 우크라이나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 우크라이나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치하는 등 무역 지원 조치 연장하여 시행 중임

〈우크라이나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

연번	품목분류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1	화학	황산과 발연황산 (Sulphuric acid and fuming sulphuric acid; oleum)	2807.00.0000	세이프가드	'17.7.31	<최종> '18.8.2 <일몰> '21.8.28	° '17.7.31 : 조사 개시 ° '18.8.2 : 최종 판정 ° '20.9.2 : 일몰 재심 개시 ° '21.8.28 : 일몰 재심 최종 판정 * 수입쿼터 적용 · '21.9.1~'22.8.31 : 55,427톤 · '22.9.1~'23.8.31 : 63,741톤 · '23.9.1~'24.8.31 : 73,302톤
2	기타	생화 장미 (Fresh roses)	0603.11.00	세이프가드	'20.5.28	'21.5.16	° '20.5.28 : 조사 개시 ° '21.5.16 : 최종 판정 * 1년차 56%, 2년차: 44.8%, 3년차 35.84%

자료: WTO 통계 및 현지 관보 등을 종합하여 KOTRA 키이우 무역관 정리

다. 투자 진출

▣ 우크라이나 투자 환경

- 비록 우크라이나에 정치·군사적 불안요소가 늘 있긴 했으나, 러-우 사태 전만 해도 투자 환경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었음. 매년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인 “Doing Business 2020”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총 190개국 중 64위로 매년 개선되고 있는 추세였음(전년 대비 7계단 상승).
- 그러나, 러-우 사태로 인해 우크라이나 투자 환경은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투명해졌고, 사태가 진정되고 양국 간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당분간 외국인 투자유치를 기대하기 쉽지 않으리라 예상

▣ 주요 경쟁국 투자 진출 동향

- 러-우 사태 전에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살펴보면, 당해 연도 순유입된 금액에서 순유출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2016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었음. 유로마이단 사태로 혼란스러웠던 2014년에는 2.9억 달러였으나, 2016년에는 37.9억 달러, 2017년 36.8억 달러, 2019년에는 52.1억 달러를 기록했음
- 러-우 사태 이전에 우크라이나에 투자한 주요 국가를 보면, 키프로스, 네덜란드, 스위스, 러시아, 폴란드, 헝가리, 프랑스, 오스트리아, 미국, 스웨덴, 독일 등임. 유럽 국가들의 투자가 꾸준히 이어지는 것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유럽 시장의 생산·공급 기지로서 평가받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음
-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본국에서 조세 피난처로 빠져나간 자금이 ‘라운드 트리핑(Round-Tripping)’ 과정을 통해 우크라이나 내 금융·보험 산업으로 재투자되는 경우도 많다고 알려져 있음
- 러-우 사태가 시작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급격히 감소했음. 2023년 우크라이나 비즈니스 환경이 조금 개선되었으나, 정치 및 안보 문제로 인해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對우크라이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당해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순유출)	단 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상
	억 달러	2.9	△4.0	37.9	36.8	44.6	52.1	△9.5	27.9

자료: World Bank

라. 프로젝트

- 2021년 1월,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2기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했음. 2기 중점협력국 24개국 가운데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구소련국가 중 선정. 농업, 보건, IT 등의 분야를 중점으로 우크라이나 대상 유무상 원조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며, 2022년에는 KOICA 사무소가 우크라이나 내에 설립되었음
 - 러-우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상원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KOICA를 통한 인도적 물품 지원에 집중하고 있음. 2022년 한 해 1억 달러가량의 물품을 지원
 - 2023년 이후에도 인도적 물품 지원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며, 일부 무상 원조는 현지 병원 재건 등 프로젝트성 사업에도 투입될 것으로 예상
- 아울러, 2023년 9월,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공여 협정(Agreement, A/G)) 협정을 정식으로 체결했음. 2024년부터는 EDCF 자금 제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EDCF를 활용한 경제개발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임. 우크라이나는 대외 차관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EDCF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으로 예상됨. 2024년 이후 EDCF 활용 타당성 조사,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등 구체적인 경험 의제가 도출될 것으로 보임

- ※ EU,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한 선진 시장
- ※ 가치 지향의 소비자가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시장
- ※ 에너지 가격 안정세로 '23년 EU 대외 무역 적자폭 완화세이나 EU FDI 투자액은 '19년 이후 저조한 흐름 지속 중
- ※ '23.8월 누계 기준 對EU 수출액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470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내 경기 둔화에도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선전

가. 교역

▣ 한국-우크라이나 간 교역 현황

-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 간 교역은 크지 않은 편인데, 교역 총액이 10억 달러를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양국 간 교역 물품 목록이 비교적 제한적이어서 교역 규모 또한 비교적 등락 없이 꾸준한 모습을 보여 왔음. 그러나, 러-우 사태로 물류 등 전반에 걸쳐 애로사항이 늘면서 교역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한국의 對우크라이나 교역 변화〉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8월)
수출	0.3	0.3	0.3	0.4	0.6	0.2	0.2
(증감률)	16.3	32.0	2.2	12.9	47.6	△62.7	91.4
수입	0.5	0.4	0.5	0.6	0.3	0.7	0.5
(증감률)	14.2	△28.3	17.9	37.3	△50.7	128.2	22.4

자료: KITA

■ 한국-우크라이나 간 교역 현황

〈2023년 1~8월 한국의 對우크라이나 상위 10대 교역 품목 (MTI 4단위 기준)〉

〈한국의 對우크라이나 주요 수출품〉

순위	상품명	금액 (백만 달러)
1	화물자동차	67
2	화장품	43
3	승용차	24
4	타이어	14
5	의료용기기	10
6	배전 및 제어기	9
7	아연도강판	7
8	자동차부품	7
9	의약품	6
10	의료용전자기기	5

〈한국의 對우크라이나 주요 수입품〉

순위	상품명	금액 (백만 달러)
1	곡류	290
2	사료	218
3	기타난방및전열기기	10
4	기타정밀화학원료	9
5	항공기부품	5
6	박류	5
7	직물제의류	2
8	원동기	2
9	식물성유지	2
10	기타비철금속제품	1

자료: KITA

- (수출) 대우크라이나 주요 수출품은 승용차, 타이어, 철강재, 화장품 등이었음. 그러나, 러-우 사태로 대우크라이나 수출은 2022년 한 해 2억 1,693만 달러로 전년 대비 62.7% 감소했음. 2023년 8월까지 2억 4,505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1.4% 늘었음.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우크라이나 무상 원조 물품이 수출로 잡히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정상적인 수출 거래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함
- (수입)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식물성 유지, 곡물, 사료 등 원부자재였음. 러-우 사태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한 해 수입이 7억 485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8.2% 증가했는데, 이는 사태 전에 이미 계약되어 수입된 곡물로 인한 것임. 2023년 1~8월까지 수입 규모는 5억 6,235만 달러임

나. 투자

■ 한국의 對우크라이나 투자 현황

〈연도별 한국의 對우크라이나 투자 추이〉

구분	단위	계	'96	'97	'98	'99	'00	'01	'02	'03	'06	'07	'08	'09	'10	'11	'12	'13	'16	'17	'18	'19	'20	'21	'22
신규법인	개사	50	6	-	4	-	-	1	-	3	2	3	7	1	2	1	2	-	3	2	1	4	5	3	-
투자금액	백만불	312	10	4	190	2	37	-	-	1	-	-	6	-	-	-	1	-	47	-	3	7	1	1	-
회수건수	건	7	-	-	-	-	1	1	1	2	-	-	-	-	-	-	1	1	-	-	-	-	-	-	-
회수금액	백만불	24	-	-	-	-	5	7	5	7	-	-	-	-	-	-	-	-	-	-	-	-	-	-	-
순투자액	백만불	288	10	4	190	2	32	△7	△5	△6	-	-	6	-	-	-	1	-	47	-	3	7	1	1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투자 진출 통계가 공식적으로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로,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총 47개 사의 신규 법인을 설립했음. 이 가운데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는 기업은 20개 사 내외인 것으로 추산됨. 러-우 사태에도 불구하고, 아직 청산을 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 1996년 이후 누적 투자금액은 3.12억 달러이며, 이 중 회수된 금액은 0.24억 달러로, 누적 순투자액은 2.88억 달러임. 주요 진출업종은 제조업, 운수업, 도·소매업인데, 현재 우크라이나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기아차,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중합상사, GS건설, 한국타이어, 에코비스, 오스템 임플란트 등 20개 사 내외임
- 일부 기업의 경우, 우리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 법인장 등 현지 책임자가 우크라이나로 입국해서 정상 운영을 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법인/지사의 경우, 한국인 책임자가 제3국에 체류하면서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임

다. 협력 유망 분야

- (국가 간 협력 유망 분야) 우리나라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공여 협정(Agreement)'을 정식으로 체결한 가운데 향후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이를 활용한 재건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하여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수 있음

- 휴전·종전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이 러-우 사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야 재건사업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방안이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임
- 그전에는 인도적 지원, 무상 원조를 중심으로 한 긴급물자 보급, 긴급시설 복구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 (기업 차원의 협력 유망 분야) 우크라이나와 함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재건 프로젝트에 한국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향후 재건 수요는 세계은행이 발표한 바와 같이 4,110억 달러 선으로 추정됨. 그러나, 러-우 사태가 길어질수록 금액은 더 커질 것이 분명함. 이 가운데 우리 기업이 주목할 분야는 에너지 분야임. 우크라이나 정부는 EU 회원국 가입을 끝까지 추진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를 위해 탄소중립 등 EU의 에너지 정책에 자국 산업을 체질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세계은행은 재건 사업 수요 분야를 교통(22%), 주택건설(17%), 에너지(11%), 사회 보호(10%), 폭발물 관리(9%), 농업(7%) 등으로 보고 있음
- (공급망) 러-우 사태 전에 주요 수출품이던 농산물, 광물 등의 수출은 러 軍이 해상을 봉쇄하고, 주요 광물 산지가 현재 러 점령 지역에 있어 급감했음. 러-우 사태가 끝난 후에도 기존 주요 수출품의 수출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음

■ 우리 기업 진출전략

- (EDCF 활용 민-관 협력) 사태 이전에 양국 간 대외경제협력기금 공여 기본조약 체결 진행, 재건 사업과 맞물려 EDCF 제공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도로 건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수소 인프라 구축 등 향후 재건 프로젝트 진출에 있어 민-관 협력이 필요함
 - 우크라이나 정부의 수요에 우리 기업의 강점과 정부의 지원책을 결합시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함
 - * 예) [우크라이나 정부의 수요] 파괴된 도시에 전기·난방을 공급해야 하는 과제
[우리 기업의 강점] 발전용·빌딩용 퓨얼셀(수소연료전지) 생산 역량 보유
[우리 정부의 지원책] 수소산업 개발 관련 경험자금 지원
⇒ 국내 수소기업의 우크라 도시 재건사업 참여 독려

■ 재건사업 관련 협력 유망 분야

- (도로 건설) 2021년 기준 우크라이나 물류에서 도로 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71.3%로 유럽과 연결된 우크라이나 국내 도로의 긴급 복구가 필요함

- 2020년 기준 우크라이나 도로 총연장은 169,720km인데, 개전 후 25,000km에 달하는 도로와 344개의 교량 등이 파손된 상태
 - * 인프라 재건 및 개발국(State Agency for Restoration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는 피해액이 약 1조 4천억 흐리브나(약 36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 우크라이나의 수출 확대를 위해, 물류 기반에 대한 긴급 복구가 필요한 만큼 도로 건설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시설 구축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임
- (신재생에너지) 사태 이전부터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 정책을 적극 추진했고, 오히려 에너지 의존을 탈피하기 위한 대안책 마련이 중요한 시점임
 - 우크라이나는 유로마йдान 이후 전력 생산 에너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육성하였음
 - * 전력 생산량 구성비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17) 1.2% → ('21) 8.0%

〈최근 5년 우크라이나 전력 생산량 동향〉

구분		단위	2017	2018	2019	2020	2021
총 전력 생산량		GWh	155,414	159,351	153,950	148,810	156,576
생산량 구성비	원자력	%	55.1	53.0	53.9	51.2	55.1
	천연가스/석탄화력	%	35.9	36.9	36.3	35.2	29.3
	수력	%	6.8	7.5	5.1	5.1	6.7
	신재생(풍력/태양광)	%	1.2	1.7	3.6	7.3	8.0
	기타	%	1.0	0.9	1.1	1.2	0.9

자료: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 신재생에너지 시설 절반가량이 러 軍 공격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재건사업에 핵심 분야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됨
 - * 2022년 초까지 RES(신재생 전원, Renewable Energy Source) 설치 용량은 9.5GW로 시설 투자만 120억 달러 이상
- (SMR, 수소 인프라) 에너지 독립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①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②수소 인프라 구축 두 가지 옵션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됨
 - 우크라이나는 EU와 합의에 따라, '35년까지 에너지 믹스(Mix)에서 그린에너지 비율을 25%까지 올리기로 합의한 바 있음
 - 사태 이전만 해도, 헝가리·루마니아 등 인근 유럽 국가에서 우크라이나를 그린수소 공급 및 운송기지로 활용하려는 논의가 활발했음
 - * 그린수소 생산 적격지: 평균 이상의 풍속, 일조량 등 이상적 기후조건을 갖춰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빠르게 성장

Chapter



진출전략



※ 요약 : 우크라이나는 군사, 정치 불안의 영향으로 시장 진입 리스크가 여전히 큰 시장이나, EU와의 협력 강화로 유럽 시장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음
우크라이나는 우리의 기술력 및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우리와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단순 무역 파트너가 아닌 상호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1 PEST 분석

P 정치정책 (Political)	• 계엄령 선포, 전시체제로 전환함 • 2023~2025년 국가 부패 방지 프로그램 시행: 반부패 전략에서 확인된 73가지 문제를 272개의 결과 달성을 목표로 프로그램 시행 중임 • 전자 거주증(E-Resident) 법안 채택: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 우크라이나에 거주하지 않고도 공식적으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임
E 경제 (Economic)	• 경제성장률(GDP growth): '22 30.4% → '23 0.7% → '24 3.9% 예상됨 • '22 1월 기준 금리(Key Policy Rate) 10% → '22 6월 3일 25%→'23 7월 27일 22% →'23 9월 15일 20%→'23 10월 27일에 16% • 러-우 사태 시작 이후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고정환율제 적용, 2022년 7월 말부터 2023년 10월 3일까지 달러당 36.5686흐리브나 고정환율 적용→10월 4일부터 관리 변동환율제로 전환함 • 인플레이션: '22 21.1%→ '23 16.7% → '24 15.3% 예상됨
S 사회문화 (Social)	• 러-우 사태로 이후 2023년 10월 우크라이나 인구수는 2,800만~3,400만 명으로 추정, 그러나 실제로는 그보다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됨 • 공무원 제외, 실제 경제활동인구는 약 600만~700만 명 정도로 추정됨 • 소비자들은 생존하는 데에 가장 필요한 제품을 주로 구매, 사람들의 별이가 줄고 상품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은 가격에 굉장히 민감해짐
T 기술 (Technological)	• 러-우 사태로 인해 특별한 기술변화 없음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우크라이나 시장 SWOT 분석〉

강 점(Strength) • 유럽 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급 노동력 • 한류 등의 영향으로 우리 기술력 및 제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	약 점(Weakness) • 한-우크라이나 간 물리적 제약(시차,거리) 상존 • 품질보다는 가격 민감도가 높은 시장구조 • 관료주의, 부정부패와 비효율적 행정 시스템 • 러-우 사태로 인한 경제 악화로 구매력 약화
기 회(Opportunity) • 러-우 사태로 인한 피해로 전 산업에 걸쳐 복구/재건 현대화 작업 필요 • 외국의 투자에 대한 관심 다대	위 험(Threat) • 예측 불가한 우크라이나의 대내외정치, 외교, 안보 상황 • 러-우사태로 인한 해상,항공을 통한 수출입 교역에 애로

전략 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국내 기술력 활용 합작 투자 등	유망산업 중심 시장 공략
ST 전략 (강점 활용)	• 제3국을 통한 물류/가격 경쟁력 확보 및 투자 진출 기반 구축	투자 진출 기반 구축
WO 전략 (기회 포착)	• 전력/의료/농업 등 공공조달 진출 극대화	미개척 시장 조기 선점
WT 전략 (위험 대응)	• 우크라이나 대내외 리스크에 관한 즉각적인 정보 수집 및 유사 시 대응 방안 마련	국가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구 분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방산 물품	우크라이나産 방산물자 대상으로 현지 부품공급 체인에 우리 기업 편입 확대
가공 생산 라인	생산라인 수출과 기술 이전을 통한 수출 효과 확대
폐기물 처리 산업 관련 장비	쓰레기 처리 시설 건설, 폐기물 재활용 장비 수출
	우크라이나 산업 육성정책과 궤를 함께하는 투자진출/프로젝트 추진

3-1. 생산라인 수출과 기술 이전을 통한 수출 효과 확대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더 높음, 물류가 원활하지 않아 수입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가격 상승함
- 수입산을 대체하는 저렴한 자국산 제품을 제조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국가에서도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장려, 산업을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022년 인플레이션은 21.1%이었고, 2023년 인플레이션도 가속화되고 있음.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즉 장바구니 물가를 보면, 훨씬 높음. 생필품 가격이 많이 올랐고, 에너지 비용도 70% 가까이 오르는 등 힘든 상황임
 - 러-우 사태로 인해 물류가 원활하지 않아 제품 수입이 어려움이 생기게 됨. 복구를 위해 다양한 공산품 및 건설자재 등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공급 부족으로 인해 수입이 더 증가하게 되었고 그 결과 국제 수지는 악화되고 제품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 이러한 이유로 수입산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한 자국산 제품을 제조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제조업 육성은 러-우 사태 후 우크라이나 경제가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임.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2023년 8월 31일 기준 국가부채(직접 채무 및 보증채무)가 총 1,339억 3천만 달러라고 함. IMF에 따르면, 러-우 사태 전 2021년 국가 공공부채는 국가 GDP의 48.9%이었으나 2022년 78.5%, 올해는 GDP의 88.1%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우크라이나 수출의 상당 부분은 원자재 수출로, 광석과 광물의 비중은 7.4%, 곡물과 유지작물의 비중은 29%에 달함. 내부 가공을 늘리는 것은 수출 수익을 늘리고, 국내 생산을 통해 자국 내 물품을 원활히 공급하는 전반적인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결정적인 요소임.

- (가공 생산 라인) 우크라이나 내 제조육성을 위한 생산라인 수입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무엇보다 식품 관련 생산라인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우크라이나는 20년 동안 농업 원자재 중심을 한 농업 부문을 기반으로 경제를 구축해 왔지만, 우크라이나 총리는 러-우 사태로 인해 이 모델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식품 가공이 미래 GDP 성장의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함. 한국이 보유한 뛰어난 가공 생산 라인과 기술 이전을 통한 수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3-2. 우크라이나産 방산물자 대상으로 현지 부품 공급체인에

우리기업 편입 확대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15년부터 우크라이나는 국방개혁에 공을 들여왔음. 지휘체계, 무기체계, 수송/보급, 자동화 등 전 분야에 걸쳐 개혁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무엇보다 방산산업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서 2023년 국가 예산에서 국방 분야에 40%를 책정했고 2024년 국가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 분야 50%를 책정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우크라이나는 러-우 사태 이후 국가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음. 2022년에는 탄약, 미사일 무기, 미사일 및 방공 장비 생산 개발에 특히 중점을 두었고, 2023년에는 다양한 유형의 드론 생산을 위한 여러 실험 프로젝트를 시작했음. 2024년 우크라이나 국가 예산 초안에서 방산 제품 준비 및 생산에 대한 지출을 7배, 최대 558억 흐리브냐(15억 2,590만 달러)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드론 생산량이 1년 만에 100배 증가했고, 현재 200개 이상의 우크라이나 기업이 드론 개발을 시작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무기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줄이면서 자국 내 무기 생산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2023년 우크라이나 최초 방위산업 포럼을 개최함. 포럼에 30여 개국의 252개 기업이 참여했고 우크라이나 측은 외국 파트너와 20개의 문서에 서명했음. 드론 제조, 장갑차 및 탄약 수리 및 생산에 관한 계약 및 각서이며 협력 형식에는 공동 생산, 기술 교류, 부품 공급 등이 포함

- 우크라이나 방산업체들의 생산품들은 상당수가 구소련 무기에 기반을 두고 있어 기술적으로 서방 국가들의 정교한 무기들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우크라이나가 방산 산업 우크라이나 제조 육성에 힘쓰고 있어, 방산 산업 관련 부품 등 부품공급 체계에서 우리 방산기업의 조달 납품이나 기술 교류도 유망할 것으로 보임

3-3. 폐기물 처리 산업 관련 프로젝트나 장비 수출을 통한 우크라이나 진출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우크라이나는 폐기물의 5%만이 처리되고, 나머지 1%만이 에너지 연료로 사용되고 있음
- 무엇보다 러-우 사태로 인해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음. 23년 6월 말까지 파괴된 장비로 인해 약 52만 톤의 폐기물 발생, 폐기물로 인한 토지 오염으로 인한 총손실은 약 251억 350만 달러에 달함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차 원료 가공 산업, 폐기물 처리 산업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우크라이나에서는 매년 4억 3,400만 톤의 산업 폐기물과 1,460만 톤의 가정 폐기물이 발생, 6,000개의 매립지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5%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그중 폐기물의 약 5%만이 처리되고(유리, 플라스틱, 알루미늄 병, 종이, 판지, 직물), 나머지 1%는 에너지 연료로 연소되고 있음.
 - 엄청난 규모의 폐기물 발생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원자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산업 역량이 부족하여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음. 러-우 사태 전 우크라이나는 폐지 5천만 달러, 폴리머 재료 1,200만 달러, 폐유리 150만 달러를 수입했었음
- 러-우 사태로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키이우, 체르니히우, 수미 지역의 비점령 지역에서만 건물과 구조물이 파괴되어 약 152억 톤의 폐기물이 발생. 우크라이나에서는 20만 대 이상의 자동차와 트럭이 파괴되어 현재 특별히 지정된 장소에 보관되어 있다고 함.
 - 2023년 6월 말까지 파괴된 장비로 인해 약 52만 톤의 폐기물이 발생. 2023년 6월 말 폐기물로 인한 토지 오염으로 인한 총손실은 약 251억 350만 달러에 달함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우크라이나는 별도 폐기물 수집 시스템이 부족하여 고품질 재활용 재료가 부족함. 현재 상황에서는 철거 폐기물을 사용하여 재활용 시설의 용량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한국은 쓰레기 처리 시설 건설 프로젝트나 폐기물 재활용 산업 육성을 바탕으로 한 장비 수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품목명 1		
타이어	선정사유	- 러-우 사태로 3천만 달러 수출을 목전에 두고 성장하다가 수출이 줄었으나 차량 소모품인 타이어에 대한 수요는 차츰 회복되고 있음 - 러-우 사태 이후 우크라이나 물류의 핵심은 내륙 운송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화물 차와 함께 부품 및 타이어 교체 수요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시장동향	- 2023년 5월까지 우크라이나의 타이어 수입액은 약 7,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
	경쟁동향	- 2022년 기준 중국(22.5%), 폴란드(19.6%), 터키(7.8%), 헝가리(7.5%) 주요 수입국임
	진출방안	- 한국산 타이어는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으나 수출 회복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저렴한 재생타이어 수출을 모색하는 것도 수출의 한 방법일 것으로 보임
품목명 2		
전력 설비	선정사유	- 전력 설비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선정한 재건사업 1단계에 해당하는 신속한 임시 복구에 속함
	시장동향	- 총발전 설비용량이 2.4만MW에서 1.15만MW로 감소, 발전소·변전소 공격에 따른 정전 등으로 산업 생산 저하, 일상생활 불편을 겪고 있음.
	경쟁동향	- 에너지 관련 EU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EU의 지원이 많고 EU와 공동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음
	진출방안	- EDCF 자금(1억불)을 활용한 전력망 복구 사업 수요 발굴을 고려해 볼 수 있음
품목명 3		
아연도강판	선정사유	- 아연도강판은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수출 2위 품목이었음 - 러-우 사태로 2022년도 아연도 강판 품목 수출 규모는 52.1% 감소했으나, 우크라이나 내 제조업 타격으로 수입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시장동향	- 현재 우크라이나는 국내 철강 생산량이 사태 전 대비 1/3 이하로 줄어든 상태임. 철강 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했던 마리우폴이 함락돼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 - 매년 2000만 톤 내외의 철강을 생산했으나, 2022년 630만 톤으로 70.7% 감소. 이로 인해 시급하게 수입을 감행하고 있음. 우크라이나 철도청은 프랑스기업과 3700만 유로의 레일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음
	경쟁동향	- 중국(35.3%), 폴란드(27.4%), 슬로바키아(12.7%), 터키(8.6%)
	진출방안	- 철강제 원료를 필요로 하는 제조사를 통한 수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한국 아연도강판 제품이 러-우 사태 전 최상위 수출품이었으므로 한국 제품을 계속 홍보하는 것이 필요함

품목명 4		
자동차 부품	선정사유	- 러-우 사태 후 시장 규모가 감소했지만 점차 회복되고 있음. 자동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동차 부품 수요도 증가
	시장동향	- 우크라이나에는 대형 물류창고를 가지고,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유통기업이 5개 사 정도 있음 - 한국산 부품도 적지 않게 취급하고 있는데, 한국 내 부품 제조사에서 직접 수입하기도 하지만, 전문 무역상사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가 많음
	경쟁동향	- 주요 수출국은 중국(28.9%), 독일(11.8%), 터키(10.8%), 폴란드(8.6%), 체코(4.4%)임. 한국은 10위(3.3%) 차지
	진출방안	- 모비스 등 순정부품에 대한 수요도 있지만, 제조사 브랜드의 비순정품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음 - 유통기업 대상 브랜드 홍보가 유효할 수 있음
품목명 5		
의료기기	선정사유	- 의료기기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러-우 사태로 인해 환자들이 늘고, 병원이 파괴되면서 복구/재건을 위한 제품 수요가 증가
	시장동향	- 러-우 사태 전 우크라이나 현지 제조기업은 약 250개 사이나, 의료기기 종류가 매우 제한적임
	경쟁동향	- 중국(23.4%), 독일(17.1%), 한국(8.8%), 미국(8.5%), 일본(8.1%), 이탈리아(3.9%)
	진출방안	- 러-우 사태 후 재활, 수술 및 진단(초음파, 엑스레이, MRI 등)기기에 대한 수요 지속. 관련 의료 장비 수출이 유망해 보임. - 현지 제조사와 협업을 통해 시장진출 확대도 바람직한 방안임

첨부 2 '24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대선	1차 투표: 3월 31일 2차 투표: 4월 21일	우크라이나 선거법에 따라 계엄령 기간이 연장될 경우,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 있음
Recovery Conference	미정	연혁: 2024년 3회째 개최 * 장소: 독일 베를린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우크라이나-터키 FTA 비준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InterCHARM Ukraine	9월 18-20일	* 미용/뷰티 전시회 * 우크라이나 내 최대 규모
PUBLIC HEALTH	미정	* 대표적인 의료산업 전시회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최한나	매니저	키이우무역관	+38-044-495-2951	hannahchoi@kotra.or.kr

2024 우크라이나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